



3면

도의회, 장애인 진실규명 국회 대응 총력

전주매일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음 7월 9일) 제333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눈앞의 문제 뛰어넘어 잠재된 미래 기회 찾다’

25일까지 전주 한옥마을서 ‘제21회 벤처썸머포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21회 벤처썸머포럼’ 첫날인 23일, 포럼 개최식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포럼 첫날 ‘기업가, 변화의 이해와 국가 경제 미래’ 주제
기조강연 시작으로 기업가정신 실천 세레머니 펼쳐져

오늘 업계 4대 현안 전문가 강연·패널 토론 등 열려
내일 전북 연계 특별 프로그램... 지역 스타트업 소개 등

대한민국 벤처·창업 분야의 최대 행사인 ‘제21회 벤처썸머포럼’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펼쳐진다.

전북도는 ‘제21회 벤처썸머포럼’이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전에서 전라북도의 발 빠른 대응과 김관영 도지사의 강한 의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처썸머포럼’은 전국의 벤처·스타트업인, 투자자 전문가들이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벤처업계 대표적인 행사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전북에서 열린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와 함께 창업·투자업계에서는 손꼽

히는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 전북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선 8기 전북도정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스타트업 타운 조성, 해외스타트업 유치, 예비 유니콘 배출 등과 함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전북도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포럼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관영 도지사,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 이용관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장, 변대규 휴팩스 회장 등을 비롯해 벤처·스타트업 대표 및 임원, 투자사 등 20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포럼은 ‘눈앞의 문제를 뛰어넘어 잠재된 미래의 기회 발견’을 주제로 2박3일 위클리션 콘셉트로 진행된다.

포럼 첫날인 23일에는 기업가, 변화의 이해와 국가 경제의 미래 라는 주제로 변대규 휴팩스 회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참여자 전원이 함께하는 ‘기업가정신 실천 동참’ 세라머니가 펼쳐졌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업계 4대 현안인 △ MONEY(기업투자 로드쇼, VC·AC 투자유치전략), △ TECH(선도기업의 AI 성장전략), △ GLOBAL(유니콘벤처에게 확인하는 글로벌시장 기회), △ 기업가 정신(미래 세대를 이룰 기업가 정신) 중심으로 전문가 강연, 패널토론 등이 열려 정보공유와 참석자들의 지적 갈등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전북을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된다.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창조적 융합 커뮤니티 구축’이라는 주제로 △윤세영 전라북도 창업지원과장의 전북의 벤처·창업 정책 비전과 방향 발표와 △전북지역 대표 스타트업 스토리 쇼케(한복남 박세상 대표)가 진행된다. 또한 지역특기 스타트업 5개사를 대상으로 투자대회를 열어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기업과 1:1 런치 멘토링도 열어 기업간 친목 도모를 넘어 지역 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참여자 간 자유로운 교류를 위한 ‘LEADERS 네트워크’와 선배가 함께 한옥마을을 거닐며 밀착 멘토링을 하는 ‘동행 미션(한옥마을 마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벤처·창업기업은 지역의 중요한 혁신 자원이다”며 “전북은 지역펀드 1조원 조성, TIPS 운영사 유치,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이뤄진 창업자문단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도내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와 완주군 진안군이 공동 주관한 임진왜란 웅치전투 승전기념 추도식이 23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유희태 완주군수와 전춘성 진안군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

(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전북도, 완주·진안군과 임진왜란 웅치전투 승전기념 추도식
황박 장군, 정영 종사관, 의병 김수·김정 형제의 후손들 참여

전북도와 완주군, 진안군이 공동 주관한 임진왜란 웅치전투 승전기념 추도식이 23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임진왜란 웅치 전투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선조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현화와 묵념을 시작으로, 임진왜란 웅치전투의 승전을 기념하는 퍼포먼스와 정담장군의 유서 낭독, 임진왜란 웅치전적 향후 계획 보고 등 전북도·완주군·진안군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특히, 이번 추도식에는 웅치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던 황박 장군과 정영 종사관, 의병으로 참여한 김수·김정 형제의 후손들이 참여해 웅치전투의 살아있는 가치를 대대손손 증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웅치전투는 ‘약무호남 시무국가’, 즉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말의 아픔을 만들어 냈으며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의 하나에도 구체적인 사료 증빙과 실제 전투지 고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평가절하되고 있었다.

웅치 전적지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이 왜군과 전투를 벌였던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에서부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일원을 말한다.

1592년 7월 8일 새벽, 왜장 코바야카와 타카카케가 이끄는 왜군이 전주로 진출하기 위해 웅치를 공격해 왔으나 7월 9일 웅치를 넘은 왜군은 안덕원(전주시 산정동 일원) 근처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웅치 전투에서의 심각한 전력 손실로 인해 안덕원 전투에서 패해 7월 10일 진안으로 철수함으로써 전주를 비롯한 전라도 일대 점령에 실패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아 전쟁 물자를 확보함으로써 조선군이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승전하는 국난 극복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에 전북도를 비롯해 완주군과 진안군이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학술연구용역과 발굴조사 등을 실시해 왔으며, 웅치 전적지는 지난해 12월 그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임진왜란 당시 해상에 한산대첩이 있었다면 육

상엔 웅치전투가 있었다”며 “임진왜란 당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 일상과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웅치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호국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사적지정 기념행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웅치전투에서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께 애도를 표한다”며 “전북도, 완주군과 함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해 많은 국민들이 웅치전투를 기억하고 찾는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선열의 숭고한 뜻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임진왜란 웅치전적의 사적지정을 계기로 도내 호국 선열들의 고귀한 헌신과 업적을 기억하는 선양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웅치전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위해서 종합계획연구용역 수립 등 웅치전적지가 호국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완주=염재복 기자
진안=우태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제27회
무주 The 27th Muju Firefly Festival

반딧불축제

2023.
9/2(토) - 9/10(일)

주최: 무주군
주관: 전북도, 무주반딧불축제재정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익산문화재단, JTB 전북문화관광재단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